

상무 상권 불 커질까...광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속도

정량 요건 충족 불구 동의율·면적 산정 보완 필요...2월 중 최종 승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비 유입 효과·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기대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돼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가 신청한 '상무자유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에 대해 요건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일단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서구에 제시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환경 개선과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요건은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할 것,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감소한 곳이어야 한다.

이번에 서구가 신청한 구역은 서구 상무대로 773번지 일원(1·2층)으로 전체 면적은 2만 8629.62㎡ 규모다.

광주시 경제정책과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전체 면적의 100%가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총 155개 매장 중 118개 점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돼 상업지역 비율과 점포 수 등 법적인 형식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권 위축 기준 역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시는 상인들의 동의 절차와 구역 면적 확정 등 일부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의율을 산정할 때 예비 구역 내 '총 매장'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구분소유자나 2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식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청 구역의 경계도에 따른 정확한 면적 재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서구에 해당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지역상권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2월 중 결정돼 통보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무로 일대 자율상권구역 신청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치구와 상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비한 요건들이 신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서구와 긴밀히 협력해 2월 중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 확산에 계란 위생 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계란 도소매 업소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년 창업 얼어붙었다...광주·전남 30대 이하 사장 2년째 감소

1년 새 1054명↓...50·60대 이상 대표자는 증가

불경기에 청년 창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광주·전남 30대 이하 사장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광주·전남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6만4956개로, 전년(6만6010개)보다 1.6%(1054개) 감소했다.

광주 30대 이하 사장은 1년 새 3만2651명에서 3만2097명으로 1.7%(554명) 줄고, 전남은 3만3359명에서 3만2859명으로 1.5%(500명) 감소했다. 30대 이하 대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5.9%에서 2024년 15.2%로 줄었다.

광주·전남 40대 대표자는 10만2626명으로, 전년보다 3.8%(4103명) 감소했다.

반면 50·60대 이상 사장은 같은 기간 증가했다.

50대 대표자는 13만8942명에서 14만1548명으로 1.9%(2606명) 늘었고, 60대 이상은 10만4763명에서 11만9314명으로 13.9%(1만4551명)나 증가했다.

광주·전남 30대 이하 대표자는 2022년(6만7864명)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60대 이상 대표자는 관련 조사를 한 2020년(9만4869명)부터 4년 연속 늘었다.

광주에서 30대 이하 청년 사장은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30대 이하 대표자는 1004명으로, 1년 새 11.9%(135명)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업 11.4%,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1.1%,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10.7%, 농림어업 8.3%, 숙박·음식점업 6.8%,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6.7%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30대 이하 대표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22.4%·254→311명)이었고, 운수·창고업(6.4%),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5.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6%) 등이 뒤를 따랐다.

전남에서도 제조업 청년 사장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30대 이하 대표자는 1664명에서 1429명으로, 14.1%(235명) 줄었다. 농림어업 11.2%,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11.1%,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1.0%,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7.1% 등이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 대표자가 늘어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43.5%·1459→2094명), 정보통신업(4.9%), 금융·보험업(4.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3.4%) 등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동차세 미리 내고 4.5% 할인 받으세요”

광주시,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등서 다음달 2일까지 연납 신청

광주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세금을 연초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세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올해 신청 기간은 통상적인 1월 말일이 아닌 2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1월의 마지막 날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을 조정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고 간편하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했던 시민은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관할 구청에서 할인된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이달 중 자동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시중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 입계좌를 활용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올해는 연휴 등을 고려해 신청 및 납부 기한을 2월 초까지 넉넉하게 잡았다"며 "클릭 한 번이나 전화 한 통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황룡강 수질악화 원인 정밀조사 착수

지류·지천 수질조사 등 진행

전남도가 황룡강의 수질 악화 원인 규명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영산강 수계 '황룡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수질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룡강 수질은 3.06

mg/ℓ로 2020년(2.48mg/ℓ)보다 악화되면서 수질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정밀평가를 연구용역에 착수해 주요 지류·지천 수질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올해 환경부로부터 수계관리기금 3억 5100만원을 확보해 황룡강 분류와 장성천 등 17개 지류·지천 전 구간 정밀조사를 실시, 수질오염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정밀조사 지역인 '황룡A' 단위유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질오염도가 증가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도는 오염원 추적조사와 배출경로 조사, 수질항목 간 특성 분석 등을 통한 수질악화의 세부원인 분석,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배출원(Hot-spot) 추적조사를 통해 조사 구역의 말단, 목표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과 관로배출, 공공배출, 개별배출 등 배출경로별 수질 및 유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형태, 축산분뇨의 처리형태(자원화·위탁·폐수처리) 등 기존 오염원 조사 현황과 다른 실제 배출경로 조사 방식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성경연구학과(Th.M.)
		신학과(Ph.D.)
		성경연구학과(Th.D.)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코칭심리학과(D.Psy.)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유아교육학과(M.Ed.)
		상담심리치료학과(M.A.)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코칭심리학과(M.Psy.)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재활심리치료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평생교육학과(M.Ed.)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5.(월) ~ 19.(월)
- 전형일: 2026. 1. 22.(목) 오후 2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와 중첩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